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가사노동 참여와 공유 활동이 부부관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Household Work Participation and Shared Activities on Marit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김수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선강***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M.A Kim, Su-Jin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Professor Koh, Sun-K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 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household work participation and shared activities between couples on marit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among retired men and women with retired husbands. To investigate this, a survey of 367 married people is conducted on retired men and women with retired husbands.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marital relationship of retired men are found to be couples' shared activities, gender role attitude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marital relationship of women with retired husbands is influenced by shared activities by couples, the division of domestic labor, and gender role attitudes. The factors affecting retired men's depression are shared activities by couples, perceived health status, type of jobs before retirement, and age. Women's depression is related to household income, shared activities by couples, husbands' jobs before retirement,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division of household labor.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 졸업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 교신저자(skoh@sungshin.ac.kr)

Key Words : 가사노동(household work), 은퇴(retirement), 우울(depression), 부부관계(marital relationship)

I. 서론

우리사회의 주류 세력인 베이비붐 세대의 급격한 은퇴가 시작되었다. 이들의 대규모 은퇴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산업화세대 보다 교육수준도 높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도 잘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선주, 2017). 은퇴 전 후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은퇴와 동시에 삶에서 직장생활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가정생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은퇴를 경험하는 대다수의 남성은 일 중심, 직장생활 중심의 삶을 살아왔고 이들에게 은퇴는 가정생활이라는 새로운 장으로 적응을 요구하는 생활사건이다. 반면 은퇴 연령에 있는 여성들의 대다수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고 가정은 이들의 일터이자 삶의 주요한 장이다. 이들에게 배우자의 은퇴로 인한 가정생활의 변화는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고 부부관계의 재정립, 생활양식의 변화 등이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가사노동은 가정생활에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것이다.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은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인데(유계숙 외, 2011), 특히 은퇴기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은 은퇴 후 삶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기대 불일치로 인한 갈등의 요소로 부각된다. 현재 50대~60대의 은퇴하는 남성들 대다수는 가사노동에 낯설고 익숙하지 못하다. 이들은 ‘남자는 바깥일만 잘하면 된다.’는 성별 분업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정 보다는 직장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의 조직문화는 장시간 노동과 회사를 위한 개인의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은퇴에 가까운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직장인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이재인, 2010). 현재 은퇴기에 있는 남성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가사노동의 면제권을 누리며 살아왔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정생활의 비중은 커지고 가정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졌다. 그러나 가사노동에서 배제된 삶을 살았던 남성들은 현실에서 주어진 기회만큼 활발하게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은퇴를 한 남성은 가사노동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은퇴 이후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서울시의 한 조사에 의하면 남편의 은퇴 후에도 가사노동 영역 중 식사준비와 설거지는 대부분 여성이 담당을 하였고, 남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가사노동 영역은 유일하게 쓰레기 분리배출이었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수행 빈도 자체가 낮아서 가사노동 전 영역을 볼 때 전체적으로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선주, 2017).

남편의 은퇴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새로운 도전을 안겨준다. 남편은 은퇴 전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가장으로서 자신을 대접해 주고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 반면 아내는 지금까지 가사노동을 업으로 삼아 왔기에 이제는 가사노동에서 은퇴하고 싶은 시점이 된다. 남편과 아내의 가정생활에 대한 기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가사노동 능력이 없고, 참여도 하지 않는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들에게 은퇴한 남편은 하루 12시간 삼시세끼 수발을 필요로 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한국일보, 2017). 가사노동의 양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데(김선미·이기영, 2006),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을 하면 가사노동의 양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전업주부들도

주부로서 느끼는 가사노동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 시점이 남편의 은퇴 시점과 유사하여 은퇴 전과 같이 아내로부터 가사노동을 제공받고 싶어 하는 남편과 가사노동에서 어느 정도 은퇴하고 싶은 아내의 기대 차이는 부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남편이 은퇴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은퇴한 남성들은 가사분담에 관해 부부간 갈등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들은 자주 갈등을 겪는다고 생각하였다(고선주, 2017).

남편의 은퇴 이후에 가사참여 정도, 부부간 공동활동의 정도,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 등에 따라 은퇴 이전의 부부관계 보다 은퇴 이후의 부부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남편이 가사노동 분담을 전혀 하지 않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은퇴 후의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은퇴 후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이주연·김득성, 2015). 통계청(2017)의 2016 혼인이혼통계 따르면, 혼인 지속기간에 따른 이혼율을 비교한 결과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30.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과거에는 혼인 초기(결혼 지속기간 5년 이내)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 이후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율, 즉 황혼이혼의 비율이 혼인 초기 이혼의 비율을 넘어섰고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20년 이상을 함께한 부부의 이혼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은퇴 후 부부간 역할과 변화에 적응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은퇴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부정적인 변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은 역할 수행에 따르는 자아정체감의 상실로 이어지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승원·김동배·이주연, 2008). 은퇴자들은 외로움 소외감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은퇴 이후의 가족과의 관계와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김주희·이기영·최현자, 2009) 다시 말해, 은퇴 후 새롭게 변화되는 삶에 대한 재정립과 긍정적인 적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 후 부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신화용·조병은, 1999). 아내의 남편에 대한 가사 참여 기대 정도와 현실이 불일치할 때 여성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양성 평등적인 가족 가치관이 확산된 현대 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지닌 남성의 가사 참여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는 부부관계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부부관계나 우울감,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부부간 공유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은퇴 후 부부관계와 우울감을 이해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의 삶에 부부간 공유 활동은 다른 의미를 주기도 한다.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이 늘어날 때 남편의 생활에 대한 만족은 증가하지만 아내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다(서미숙·성효용, 2017).

은퇴 후 부부관계와 우울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직업적·경제적 요인에 관심을 두었다. 남편의 은퇴 후 부부가 함께하는 가정생활 영역이 크게 늘어나지만, 가정생활에 필수적인 가사노동 참여와 부부간 공유 활동이 은퇴 후 부부관계나 개인의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해 가사노동 분담, 즉 누가 더 많이 하는가의 양적인 측면이 부부의 생활만족과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있으나, 가사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포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은퇴한 남편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빈도는 낮고 시간은 적지만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경우와 시간도 적고 수행 능력도 낮은 경우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사노동 수

행 능력은 가족자원경영의 관점에서 가사노동 연구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전에 가사노동에 필요한 자원 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표준을 조정하는데, 이 때 가사노동 수행자의 수행능력이 중요한 인지적 자원으로 활용된다(채옥희·송복희, 2006). 본 연구는 가사노동 참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사노동 분담과 가사노동 수행능력을 포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가사참여도와 부부간 공유 활동이 부부관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은퇴 후 부부관계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은퇴 후 부부관계와 우울감

남편의 은퇴로 인한 직업 역할 상실과 자녀 성장에 따른 적극적인 부모 역할 감소로 인해 은퇴 후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정신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일 수 있다(신화용·조병은,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에서 실시한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3,027명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에서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배우자’라는 응답이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녀’ 10.4%, ‘친구’ 7.2%, ‘형제·자매’ 3.7% 순으로 나타나, 길어진 노후 생활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부부관계는 변화가 일어난다. 긍정적인 변화로 은퇴 후 증가된 시간에 가사노동이나 다양

한 여가 활동을 부부가 함께하여 배우자와 관계가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의 시기에 서로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부정적인 변화로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시간 활용이나 가사노동에 관한 의견 대립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은퇴와 함께 가정생활의 중심으로 돌아온 남편의 등장은 아내에게 오랜 시간 자신의 영역이었던 가정생활에 대한 간섭과 자신의 시간을 방해하는 존재로 다가온다. 이러한 상황은 아내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어 결혼 생활에서 불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다(장은정, 2006). 박정윤, 한은주와 이희운(2014)의 중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중년기 부부들은 은퇴 후 부부관계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를 예측하였다. 은퇴 전보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부부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부부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증가와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도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예측하였다. 반면 은퇴 후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의견 충돌, 상호 부양의 부담감 증가로 부부갈등의 우려가 있음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한편, 은퇴 후 사회적 지위 변화와 가족 내 역할 변화는 우울감과 같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퇴기는 직장 생활의 제약과 의무에서 벗어나 삶의 한가로움을 즐길 수 있는 시기이지만, 아직은 노후 생활보장 체계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은퇴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장은정, 2006). 은퇴로 인한 경제력 감소는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키며 직업과 관련된 사회 활동 감소는 우울이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특히 일 중심의 생계 부양자로 살아온 한국 사회의 남성들에게 가족 내 지위와 역할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가족에게도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명자·박미금·송말희, 2005). 즉, 남성의 은퇴 후 소득 감소와 직업 역할 상실은 가정에서 가사 참여 정도,

부부간 공유 활동 등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를 경험한 남성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배우자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은퇴 후 부부관계는 이전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부부관계를 각자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가사노동이나 다양한 공유 활동을 부부가 함께 함으로써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더욱 친밀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간섭으로 느껴져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은퇴는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중·노년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개인의 정신 건강은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편의 은퇴 후 부부관계와 우울감에 관한 남녀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남녀가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은퇴 후 부부관계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사노동 참여와 부부간 공유 활동

가사노동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인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지만 노동의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여성이 인식하는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송혜림, 2000; 채로, 2004). 채로(2004)는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112쌍을 대상으로 가사노동 시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내보다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시간이 많은 집단에서 부부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남편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남편과 아내 모두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부부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유

계숙 외(2011)의 연구에서도 맞벌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부부의 가사분담 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계숙 외(2011)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부부가 지각한 부부간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으나,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부부가 지각한 가사분담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이와 다르게, 아내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허용하기 보다는 가사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정 내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여(신화용·조병은, 1999), 가사노동 분담이 여성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지만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가사노동 분담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은퇴 후 가정생활에서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는 부부관계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이주연과 김득성(2015)은 남편의 은퇴 이후 부부의 적응과정을 연구하였는데,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는 은퇴 후 부부관계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 은퇴 후 부부관계의 재정립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전혀 없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주장하여 부부간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나타난다고 하였다.

가사노동 분담과 우울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사노동 분담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여성일수록 우울감이 높고, 결혼만족도가 낮다(Kluwer et al., 1996). Glass와 Fujimoto(1994)가 미국의 기혼 남녀 3,846명을 대상으로 가사노동과 우울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의 가사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김영혜(2004)의 연구에 의하면, 성역할이 전통적인 남성이 현실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해야할 경우 남성의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성역할 태도와 현실이 불일치할 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사노동의 질적 측면은 수행 능력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송혜림(2000)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남성의 가사노동 수행 능력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분담 정도가 높아지고,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내가 인식하는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0대 여성 주부의 가사노동과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채옥희와 송복희(2006)의 연구에서도 30대 여성 주부의 가사노동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주부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을 자신감있게 유능하게 수행할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부간 공유 활동은 부부관계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주로 여가활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개인이 혼자 하는 활동보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부부관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영·김의숙·구혜령, 1995). 반면 부부간 공유 활동이 남편과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간 공유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내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 반면, 남편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간 공유 여가시간이 늘어날수록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아내의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서미숙·성효용, 2017).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부부간 공유 활동과 관계가 있는데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활동이 있는 경우,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길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높았다. 반면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양 자체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정순돌·김고은·김정원, 2011). 이렇듯 부부간 공유 활동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노년기 부부의 경우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늘어날수록 여가 공유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할 수 있다(이선미·김경신, 2002). 은퇴한 남성노인의 경우 부부간 공유 활동은 아니지만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여진·박선영, 2013). 지금까지 부부간 공유 여가 활동이 부부관계나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만, 가정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공유 활동에 대한 연구는 임소진(2011)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3. 부부관계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낮아지며,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태현과 전길양(1997)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는 결혼 초기에 높고 다시 낮아졌다가 노년기에 다시 상승하는 U자형으로, 노년기에 결혼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연령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이종범·서혜수·정성덕, 1984), 은퇴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우울감 연구에서는 연령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김여진·박선영, 2013). 교육수준은 심리적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데, 양지훈(2012)의 연구에서 부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노년기 우울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영희, 1995; 김영혜, 2004; 김여진·박선영, 2013). 또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성인일수록 우울감과 같은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정, 2007). 은퇴 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았으며(이승원 외, 2008),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조유리, 2000). 은퇴한 남성은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지하였다(김미영·손서

희·박미석, 2011). 자녀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숙, 1995).

직업은 결혼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지만, 은퇴 전 직업과 은퇴 기간이 은퇴 후 부부관계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남편이 은퇴한 중고령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남편의 은퇴기간은 영향을 미치며, 은퇴기간이 길수록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정순돌 외, 2011). 은퇴 전에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자영업 등에 종사하였던 경우에 비해 전문관리직에 종사했던 사람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은퇴 기간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권은비, 2010). 또한 은퇴기간은 고령자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은퇴 유형은 고령자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이승원·김동배·이주연, 2008). 남성 은퇴자의 경우 은퇴시 취업상태가 정규직인 경우 자영업 종사자 보다 우울 수준이 낮았다(김여진·박선영, 2013).

성역할 태도가 양성 평등적인 집단이 전통적인 집단에 비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고(김태현·박주희, 2005),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일수록 부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와 부부 갈등 경험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에 속하는 경우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부부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였으나, 아내의 부부갈등 인지는 성역할 태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성역할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남성의 결혼만족도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낸 집단과 비교하여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조유리, 2000). 반면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아내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어(조지

은·김양희·박정윤, 2007) 성역할 태도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과 여성에게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아, 은퇴한 남편과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의 부부관계에 성역할 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통제 변수를 정하였다. 부부관계와 우울감의 공통된 통제변수로 연령, 교육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가구 소득을 선정하고, 부부관계 관련 변수로 자녀 수, 성역할 태도, 은퇴기간을 선정하였고, 우울감에 관련 변수로 은퇴 전 직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남편의 은퇴 후 부부관계와 우울감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 부부의 가사노동 참여와 부부간 공유 활동은 남편의 은퇴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외에 남편의 은퇴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3) 부부의 가사노동 참여와 부부간 공유 활동은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외에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자료 및 표본

남편의 은퇴 후 부부관계와 우울감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한 자료수입을 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남성(n=176)		여성(n=191)		전체(n=367)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176	48.0	191	52.0	367	100.0
연령	60세 미만(46세-59세)	45	25.6	90	47.1	135	36.8
	60세 이상-65세 미만	62	35.2	66	34.6	128	34.9
	65세 이상	69	39.2	35	18.3	104	28.3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6	3.4	9	4.7	15	4.1
	중학교 졸업	16	9.1	33	17.3	49	13.4
	고등학교 졸업	82	46.6	90	47.1	172	46.9
	대학교 졸업	58	33.0	53	27.7	111	30.2
	대학원 졸업	14	8.0	6	3.1	20	5.4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하지 않음	18	10.2	27	14.1	45	12.3
	보통	59	33.5	51	26.7	110	30.0
	건강함	99	56.3	113	59.2	212	57.8
가구 소득	150만원 이하	62	35.2	63	33.0	125	34.1
	151만원-250만원 이하	56	31.8	65	34.0	121	33.0
	251만원 이상	58	33.0	63	33.0	121	33.0
혼인 기간	30년 이하	62	35.2	63	33.0	125	34.1
	31년-36년 이하	50	28.4	71	37.2	121	33.0
	37년 이상	64	36.4	57	29.8	121	33.0
가족 수	2명	59	33.5	41	21.5	100	27.2
	3명-4명	87	49.4	89	46.6	176	48.0
	5명 이상	30	17.0	61	31.9	91	24.8
자녀 수	0-1명	23	13.1	21	11.0	44	12.0
	2명-3명	133	75.6	145	75.9	278	75.7
	4명 이상	20	11.4	25	13.1	45	12.3
성역할 태도	전통적	62	35.2	48	25.1	110	30.0
	근대적	114	64.8	143	74.9	257	70.0
남편의 은퇴 전 직업	고위관리직	20	11.4	16	8.4	36	9.8
	전문직	23	13.1	19	9.9	42	11.4
	사무직	53	30.1	78	40.8	131	35.7
	판매 및 서비스직	25	14.2	31	16.2	56	15.3
	농/어/임업 등 생산직	15	8.5	18	9.4	33	9.0
	기능직	36	20.5	28	14.7	64	17.4
	기타	4	2.3	1	.5	5	1.4

조사기간은 2013년 3월 4일부터 4월 12일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 및 전북에 거주하고,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 367명이며, 은퇴 후 생애 주된 일 자리는 떠났지만 소일거리를 하는 경우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대상자 선정은 비확률 표 집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 서 은퇴한 후 같은 직종에 종사하였던 은퇴자들로 조직된 비공식적인 모임과 지역의 복지관 및 은퇴자들을 위한 재취업·창업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사 대상자들을 표집하였다. 배포된 400부의 설문지 가운데 392부가 회수되었으나, 적절치 않은 25부를 제외한 총 367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1) 부부관계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은퇴 후 부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동숙(1991), 신화용(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장은정(2006)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장은정(2006)의 부부관계에 관한 척도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정서적 친밀도, 의사소통 효율성, 여가 공유도의 3개의 하위 변수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가 공유도를 제외하고 정서적 친밀도를 알아보는 4개의 문항과 의사소통 효율성을 알아보는 3개의 문항을 포함한 총 7개의 문항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장은정(2006)의 척도에서 여가 공유도를 측정하는 문항들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부부간 공유 활동을 측정하는 문항들 중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부분의 의미가 유사하였다. 장은정(2006)이 사용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의 중복이 발생하여 여가 공유 부분은 제외하였다.

은퇴 후 부부관계는 은퇴 후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도와 의사소통 효율성의 변화 정도를 말한다. 7개 문항 중, 신뢰도 분석 결과를 통해 신뢰도를 저해하는 1개 문항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6개의 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는 6점에서 3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의 정서적 친밀도와 의사소통 효율성이 은퇴 후에 더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0이며, 남성의 Cronbach's α 는 .80, 여성의 Cronbach's α 는 .81 이었다.

2) 우울감

우울감은 현재 생활에서의 만족하는 정도, 무기력함, 앞날에 대한 희망감, 타인과의 상대적인 비교 등 은퇴 후 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우울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백석(1996), 김효정(2007)의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 도구(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GDSSF-K)'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하는 양분 척도로서, 긍정적인 느낌을 묻는 문항을 중심으로 '그렇다' 0점, '아니다' 1점을 부여하였다. 총 15문항이며 점수는 0점에서 15점 사이에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0이며, 남성의 Cronbach's α 는 .81, 여성의 Cronbach's α 는 .80 이었다.

3) 가사참여도

독립 변수인 가사참여도는 가사노동 수행 능력과 가사노동 분담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가사노동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애리(1998)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가사노동의 5가지 영역의 세부 항목의 내용은 이미숙(1995)과 김영혜(2004)의 척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가사노동 수행 능력이란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 즉, 가사노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의

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사노동 수행 능력 척도는 유에리(1998) 척도의 육아영역을 돌봄영역으로 수정하여, 의생활영역·식생활영역·주생활영역·구매 및 가정경영영역·돌봄영역 등의 5가지 영역, 총 18개의 문항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방식의 척도로서 점수는 0점에서 9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 수행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5이며, 남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6, 여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5 이었다.

가사노동 분담은 남편과 아내 중 주로 누가 가사일을 더 많이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미숙(1995), 김영혜(2004), 장은정(2006)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유에리(1998)의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총 5가지 영역과 18개의 세부 항목은 가사노동 수행 능력 척도와 동일하다. 5단계 리커트 방식의 척도이고 점수는 0점에서 9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가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1 이며, 남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1, 여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9 이었다.

4) 부부간 공유 활동

부부간 공유 활동은 은퇴 후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이나 가족과의 소규모 모임 및 친목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정도, 의사소통 정도를 의미한다.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활동 이외에 일상적인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소진(2011)의 '정형화된 가족일상(Family Ritual)'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부부를 중심으로 척도를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공유 활동을 묻는 내용으로 문항을 수정하여 총 10개의 문항으로 다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리커트 방식으로 총점을 산출하여 점수는 10점에서 5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공유 활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1 이며, 남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0, 여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2 이었다.

5) 통제 변수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모형에는 중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을 참고범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여 가변수로 만들어 투입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조사 시점의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문항은 '매우 안좋다' 1점에서부터 '매우 건강하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가구 소득은 연금·이자·국가의 보조금·자녀가 주는 용돈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수는 따로 사는 자녀와 함께 사는 자녀, 미혼자녀와 기혼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은퇴 전 직업은 '고위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농/어/임업 등 생산직', '기능직', '전업주부',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모형에는 고위관리직과 전문직을 하나의 범주로 묶고, 사무직을 하나의 범주로 하고, 서비스직, 생산직, 기능직, 기타 등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 참고범주로 하여 총 3개의 집단을 비교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가정 내 역할과 직업적 역할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의미한다. 성역할 태도는 김영혜(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단계 리커트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하였다. 10점에서 40점 사이에 분포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낸다.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집단과 '전통적'인

〈표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척도

변수	내용	측정 방법
부부관계	은퇴 후 의지할 사람은 배우자 밖에 없는 것 같다. 은퇴 후 배우자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은퇴 후 우리 부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은퇴 후 배우자와 대화가 더 잘 통하는 것 같다. 은퇴 후 배우자는 나에게 전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은퇴 후 우리 부부는 더욱 평등한 관계인 것 같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예전에 좋아했던 일들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 사는게 허전하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진다. 대체로 기분이 좋은 편이다. 앞날에 대해 걱정될 때가 많다. 대체로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고 한다. 나의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한다. 가치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생각한다.	1=아니다(우울하다) 0=그렇다(우울하지 않다)
가사 참여도	가사노동 수행 능력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 (의생활 영역, 식생활 영역, 주생활 영역,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 돌봄영역)	1=매우 못한다 2=못한다 3=보통이다 4=잘한다 5=매우 잘한다
	가사노동 분담 부부간에 가사를 분담하는 정도 (의생활 영역, 식생활 영역, 주생활 영역, 구매 및 가정경영영역, 돌봄영역)	1=남편이 거의 다 한다 4=아내가 많이 하는 편이다 2=남편이 많이 하는 편이다 5=아내가 거의 다 한다 3=부부가 비슷하게 한다
독립변수	부부간 공유 활동 영화감상, 여행 등을 함께 한다. 결혼식, 장례식 등 가족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한다. 생일, 입학, 결혼기념일 등 소규모가족모임에 함께한다. 친목이나 동호회 등에 함께 참여한다. 종교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전화,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다. 편지나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함께 식사를 한다. TV를 함께 시청한다. 대화를 나눈다.	1=전혀 하지 않는다 2=거의 자주 하지 않는다 3=드물게 한다 4=자주 한다 5=매우 자주 한다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3점 이하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로, 24점 이상은 ‘근대적 성역할 태도’로 나누었으며, ‘전통적 성역할 태도’ 0점, ‘근대적 성역할 태도’ 1점을 부여하였다(김영혜, 2004).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4이며, 남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4, 여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5 이었다.

4.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Version 19.0)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부관계와 우울감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활용하여 부부관계와 우울감의 성차를 분석하였다. 부부관계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들이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들에 위배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VIF를 산출하여 확인하였고, 잔차들 간의 관련성은 Durbin-Watson 값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은퇴 후 부부관계와 우울감의 경향성

조사 대상자인 은퇴한 남성과 배우자들의 은퇴 후 부부관계와 우울감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남녀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부관계와 우울감의 경향성

변수	남성(n=176)		여성(n=191)		t
	M	SD	M	SD	
부부관계	3.12	.65	3.14	.64	-.380
정서적 친밀도	3.23	.67	3.22	.72	.194
의사소통 효율성	2.89	.82	3.00	.69	-1.335
우울감	5.01	3.54	4.50	3.36	1.396

부부관계의 남녀별 평균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남성은 3.12점, 여성은 3.14점으로 중간값인 3점 정도로 나타났다.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여성을 배우자로 둔 여성의 부부관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신화용과 조병은(199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하위요인들에서도 통계적 검증 결과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은퇴 이후 부부관계에 대한 남녀 간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우울감은 15점 만점에 남성의 우울감 평균 점수는 5.0점, 여성의 우울감 평균 점수는 4.5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감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기백석, 1996)에서 우울 증상의 유무와 심한 정도를 판단하는 절단점을 5점을 기준으로 하여 5점 이상을 우울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본 연구의 은퇴한 남성들의 평균점수가 절단점인 5점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우울감 점수는 은퇴한 남성 노인의 우울정도가 평균 6.2점으로 보고한 김효정(2007)의 연구 결과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울감의 남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 은퇴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남성과 여성의 은퇴 후 부부관계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성 모형의 설명력은 30.3%로 나타났다. 부부간 공유 활동, 성역할 태도, 주관적 건강 상태는 남성이 인지하는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부간 공유 활동($\beta=.480, p<.0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고, 성역할 태도($\beta=-.141, p<.05$), 주관적 건강 상태($\beta=.125, p<.1$)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공유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성은 은퇴 후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 수행 능력, 가사노동 분담 정도는 부부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부간 공유 활동은 남성의 은퇴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이는 부부간 공유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이기영 외, 1995)와 부부간 공유 여가활동이 늘어나면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서미숙·성효용, 2017)의 결과를 지지한다. 은퇴한 남편은 가정 생활에서 아내와 공유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아내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남성의 은퇴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성역할 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퇴한 남성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조지은 외, 2007)는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며,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에 속하는 경우 근대적인 집단에 속하는 남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조유리, 2000)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은 부모기로 이행하는 부부(조지은 외, 2007), 학령기 자녀를 둔 부부(조유리, 2000)로서 본 연구의 대상과는 다

<표 4> 남편의 은퇴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남성(n=176)			여성(n=191)			
	SE	β	t (p)	SE	β	t (p)	
(상수)	.852	-	1.581 (.116)	.714	-	4.840 (.001)	
가사노동 수행 능력	.005	-.085	-.926 (.356)	.004	.091	1.388 (.167)	
가사노동 분담	.104	-.095	-1.056 (.292)	.071	-.255* **	-3.906 (.001)	
부부간 공유 활동	.075	.480** *	6.796 (.001)	.072	.277** *	4.170 (.001)	
연령	.010	.126	1.436 (.153)	.010	.001	.016 (.987)	
교육 수준	고졸	.139	.030	.278 (.781)	.115	.049	.549 (.584)
	대졸 이상	.148	-.035	-.311 (.756)	.127	-.100	-1.098 (.273)
주관적 건강 상태	.052	.125 †	1.730 (.085)	.047	-.027	-.412 (.681)	
가구 소득	.000	-.058	-.783 (.435)	.000	.020	.279 (.781)	
자녀 수	.053	.110	1.433 (.154)	.046	.070	.942 (.347)	
성역할 태도	.010	-.141*	-2.075 (.040)	.009	-.219* **	-3.403 (.001)	
은퇴 기간	.001	-.036	-.412 (.681)	.001	.157 †	1.955 (.052)	
R ²	.304			.345			
수정된 R ²	.257			.305			
F	6.509***			8.582***			

† p<.1, *p<.05, ***p<.001

르지만,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족생활주기 전반에 걸쳐 남성이 인지하는 결혼만족, 부부관계는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은퇴한 남성이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일수록 은퇴 후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여러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편은 은퇴 후 가정생활에서 가사노동 분담 등에 더 많은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으나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인식과 행동의 괴리가 은퇴 후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내는 가사노동 분담 등을 통해 남편에게 평등한 가정생활 참여를 요구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남편이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내는 남편이 은퇴 전에는 직장생활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정생활에 참여가 저조했으므로 은퇴 후 남편에게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을 요구해도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편은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인식과 행동의 불일치로 주어진 시간만큼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아내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남편이 은퇴 후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퇴 한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은퇴 후 부부관계 인식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성이 인지한 남편 은퇴 후의 부부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34.5%이다. 여성이 인지한 남편의 은퇴 후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가사노동 분담, 부부간 공유 활동, 성역할 태도, 남편의 은퇴기간이었다.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부간 공유 활동($\beta=.277, p<.001$)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가사노동 분담($\beta=.255, p<.001$), 성역할 태도($\beta=.219, p<.001$), 남편의 은퇴 기간($\beta=.157, p<.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함께 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남편이 은퇴한 기간이 길수록 남편 은퇴 후의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여성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한 남편의 부부관계에 가사노동 참여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간 공유 활동과 성역할 태도가 은퇴한 남성이나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 모두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은퇴한 남성이 아내와 함께하는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은퇴 후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던 것처럼,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도 남편과의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은퇴 후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은퇴기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배우자와 공유 활동은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특히 부부간 공유 활동이 은퇴 후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일치된 경향성을 나타낸 것은 남편의 은퇴 후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공통된 요소로서 의미가 있다.

다른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공통점은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이었다. 은퇴한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과 같이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의 성역할 태도 역시 근대적일수록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으나 현실의 가정생활에서는 남편과 평등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남편 은퇴 후 부부관계의 불만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아내는 은퇴 전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을 직장생활에 전념하느라 절대적 시간이 부족함으로 이해하였으나, 남편의 은퇴 후 남편이 가정생활에 참여할 절대적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아내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은퇴 후 부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은 가사노동 분담이 여성이 인지한 남편의 은퇴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난 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채로, 2004),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비율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었다(유계숙 외, 2011)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두 연구(채로, 2004; 유계숙 외, 2011) 모두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이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의 부부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내가 인지하는 은퇴 후 부부관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은 은퇴하였지만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도는 낮고 아내의 가사노동 부담률이 높을수록 아내는 남편 은퇴 후의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남성과 여성의 우울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표 5〉)과 같다. 남성 모형의 설명력은 32.1%이며, 부부간 공유 활동, 연령, 주관적 건강 상태, 은퇴 전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등이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부간 공유 활동(β -.348, p <.001), 주관적 건강 상태(β -.270, p <.001), 은퇴 전에 사무직에 종사하였던 경우(β -.149, p <.1), 연령(β -.118, p <.1)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아내와 공유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표 5〉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남성(n=176)			여성(n=191)			
	SE	β	t (p)	SE	β	t (p)	
(상수)	4.304	-	5.683 (.001)	3.686	-	3.609 (.001)	
가사노동 수행 능력	.026	-.074	-.832 (.407)	.024	-.018	-.248 (.805)	
가사노동 분담	.554	-.073	-.829 (.408)	.400	.131*	2.001 (.047)	
부부간 공유 활동	.399	-.348***	-5.042 (.001)	.406	-.179*	-2.482 (.014)	
연령	.042	-.118 †	-1.785 (.076)	.043	-.118	-1.620 (.107)	
교육 수준	고졸	.778	-.135	-1.225 (.222)	.640	.041	.425 (.671)
	대졸 이상	.869	-.144	-1.188 (.237)	.716	-.053	-.539 (.590)
주관적 건강 상태	.272	-.270***	-3.965 (.001)	.266	-.135 †	-1.905 (.058)	
가구 소득	.002	-.060	-.851 (.396)	.002	-.210**	-2.788 (.006)	
은퇴 전 직업	관리 전문직	.644	-.074	-.943 (.347)	.646	-.145 †	-1.940 (.054)
	사무직	.601	-.149 †	-1.910 (.058)	.529	-.138 †	-1.776 (.077)
R ²	.321			.242			
수정된 R ²	.279			.209			
F	7.785***			7.272***			

† p <.1, * p <.05, ** p <.01, *** p <.001

인식할수록, 은퇴 전에 판매 및 서비스직·생산직·기능직에 종사한 경우 보다 사무직에 종사한 경우에,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우울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24.2%로 나타났고, 가사노동 분담, 부부간 공유 활동, 주관적 건강 상태, 가구 소득, 남편의 은퇴 전 직업이 고위관리직인 경우, 남편의 은퇴 전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등이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변수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beta=.210, p<.01$), 부부간 공유 활동($\beta=.179, p<.05$), 남편이 은퇴 전 직업이 고위관리직인 경우($\beta=.145, p<.1$), 남편의 은퇴 전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beta=.138, p<.1$), 주관적 건강 상태($\beta=.135, p<.1$), 가사노동 분담($\beta=.131, p<.0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남편과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남편이 은퇴 전에 판매 및 서비스직·생산직·기능직 보다는 고위관리직, 전문직 또는 사무직에 종사한 경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부간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여성의 우울감이 낮다고 보고한 이선미와 김경신(2002)의 연구를 지지하며,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여성일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보고한 김영혜(200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노동 참여는 남성보다 여성의 부부관계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밝혀졌다. 남성과 다르게, 여성이 지각한 부부관계와 우울감은 가사노동 분담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여성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남편의 은퇴 후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은퇴 한 남편의 저조한 가사노동 참여는 아내가 인지하는 부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아내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은 여성

의 우울감보다 남편 은퇴 후 여성이 인지하는 부부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은퇴한 남편의 가정생활 참여는 남편 자신의 정신 건강이나 가정생활의 변화에 대한 영향력 보다는 아내의 가정생활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부진할 때 '은퇴남편증후군' 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함을 알 수 있었다. 은퇴한 남편을 둔 중노년 여성들 대다수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가사노동이 자신의 몫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해왔지만, 남편 은퇴 후 과중되는 가사노동의 부담은 이들 삶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남성의 은퇴 후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인 여성에게 가중되는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성이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은퇴 후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노동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내의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족은 증가하고,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남편의 은퇴 후 적극적인 가사노동 참여는 아내의 긍정적인 정서를 위해서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송혜림(2000)과 채로(2004)의 연구에서 남성의 가사 참여가 증가할수록 남녀 모두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간 제약이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의 가사 참여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만족감이 높아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 비교적 시간 제약이 적고 이용 가능한 시간 자원이 증가하는 은퇴 후에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아내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부부간 공유 활동은 남녀 모두에게 은퇴 후 부부관계와 우울감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변

수로 밝혀졌다. 부부관계에 대한 영향력은 남성의 경우 부부간 공유 활동, 성역할 태도, 주관적 건강 상태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부부간 공유 활동, 가사노동 분담, 성역할 태도, 남편의 은퇴 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에 대한 영향력은 남성의 경우 부부간 공유 활동, 주관적 건강 상태, 은퇴 전 직업 순으로, 여성의 경우 가구 소득, 부부간 공유 활동, 남편의 은퇴 전 직업, 주관적 건강 상태, 가사노동 분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간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부부의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이기영 외(199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부부간 여가공유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보고한 이선미와 김경신(200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가사노동 참여의 은퇴 후 부부관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부부간 공유 활동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은퇴 후 부부관계를 증진시키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공통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은퇴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난 성역할 태도는 남녀 모두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은퇴 후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역할 태도와 부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남편과 아내의 차이와 영향력의 방향 차이를 보고하였는데(조유리, 2000; 조지은 외, 2007), 본 연구 결과는 은퇴한 남성과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이들이 인지하는 은퇴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은퇴기 부부의 역할 재정립과 평등한 가사노동 참여 문제에도 성역할 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경험한 중·노년기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현대 사회에서 양성 평등적인 가치관이 요구되고 있지만 연구대상자들 세대는 부부관계, 특히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이 이미 오랫동안 굳어져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진 영역들, 여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진 영역

들을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남성 여성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부부갈등이 적고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은 가사노동에 불만이 있어도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몫으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 갈등으로는 표출되지 않은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이라면 여성은 가사노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앞서 여성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가사노동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 여겨왔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나,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은퇴한 남편에게 평등한 가사노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부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가사노동을 전업으로 해온 중노년 여성에게 언제 은퇴할 수 있을지 모를 가사노동은 내면의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이 은퇴 한 이후에도 거의 모든 영역의 가사노동을 여성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정신 건강을 위해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참여와 양성 평등한 가정 생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은퇴 한 남성이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퇴기 남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는 시·군·구 공적기관, 평생 교육원, 비영리 민간단체, 금융 기관, 사기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은퇴 교육은 대체로 자산 관리 등 경제 교육 프로그램, 재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은퇴 후 노후 생활은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부부관계를 포함한 일상의 가정생활과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 관리를 포함하며, 삶의 질이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미영 외, 2011). 은퇴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노후 설계 교육의 일환으로 은퇴기에 있는 직장 남성들과 은퇴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사노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년기 교육 프로그램, 돌봄 지원 교육 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은퇴한 남성의 자기 부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가사노동(예, 요리, 식사준비, 테이블 세팅, 정리와 청소, 세탁과 다림질, 가정기기 관리, 쇼핑과 장보기 등)의 기본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은퇴 후 가사노동 분담의 의미 또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은퇴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부양능력을 갖추는 것에 있고, 동시에 아내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아내의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전에 남성은 가정생활에서 배제되는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은퇴 이후에는 적극적인 가사노동 분담을 통해 가정생활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중노년기의 긍정적인 부부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은퇴 준비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남녀의 특성과 서비스의 수요를 반영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의 가사노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수록 가사 참여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은퇴기 남성에게는 다양한 생활영역의 가사노동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에게는 가사노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보다는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남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노년기 남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양성 평등한

가정생활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과 더불어 남성들의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나, 손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은퇴한 남성에게는 손자녀에게 음식을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를 가는 방법 등 기본적인 돌봄에 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흥미로울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가사노동을 수행해온 중·노년 여성의 경우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손자녀의 놀이나 정서 발달 등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더욱 흥미로울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를 연구하였으나, 조사 대상자 선정과 자료수집 과정의 제한점으로, 한 가정의 부부를 한 단위로 부부간의 지각 차이를 연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를 한 단위로 연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가사 참여에 있어 가사노동의 질적인 측면인 가사노동 수행 능력과 양적인 측면인 가사노동 분담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외에 가사노동 참여와 관련된 의사 결정 등의 다양한 변수를 후속 연구에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앞으로 길어진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있어 중요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들을 밝혔으나, 은퇴 전의 상황을 분석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 은퇴 전과 은퇴 후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부부관계는 양적인 연구방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질

적 연구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은퇴 후 부부관계와 우울감에 관한 더욱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고선주(2017). 서울시 5060세대의 부부관계 특성 및 가족프로그램 요구. 50+리포트, 서울시 50플러스재단.
- 2) 권은비(2010). 은퇴 관련 변수와 부부관계의 질이 은퇴한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기백석(1996).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 35(2), 298-307.
- 4) 김명자·박미금·송말희(2005). 남성 퇴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3(2), 143-158.
- 5) 김미영·손서희·박미석(2011). 한국 중고령 남성의 은퇴 경험과 은퇴 후 삶의 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65-78.
- 6) 김선미·이기영(2006). 주부의 '일상적 살림살이'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4), 109-124.
- 7) 김여진·박선영(2013). 은퇴여성노인의 우울에 관한 연구: 성별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24(3), 309-332.
- 8) 김영혜(2004). 유배우 노인의 성역할 태도·가사노동 분담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김주희·이기영·최현자(2009). 은퇴자의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73-92.
- 10) 김태현·박주희(2005).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79-106.
- 11) 김태현·전길양(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 간 지지와 역할 공유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167-182.
- 12) 김효정(2007). 남성노인의 은퇴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박정윤·한은주·이희운(2014). 은퇴 전·후 중년기 부부관계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17-133.
- 14) 서미숙·성효용(2017). 배우자 간의 시간 공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경제연구, 14(1), 103-125.
- 15) 송혜림(2000).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생활과학논문집, 2(1), 103-115.
- 16) 신화용(1996). 남편의 은퇴와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덕성여자대학교, 4, 117-131.
- 17) 신화용·조병은(1999). 은퇴한 남편을 둔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19(1), 31-45.
- 18) 양지훈(2012). 가족 공유 활동이 부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원영희(1995). 동·별거 형태가 한국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20) 유계숙·강수향·오아림·이주현(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17-136.
- 21) 유애리(1998). 신세대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인식 및 가사노동 수행과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이기영·김외숙·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 여가 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 33(3), 113-126.
- 23) 이미숙(1995). 맞벌이 부부의 가사 역할 공유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 연구. 생활과학연구논문집, 15(1), 41-69.

- 24) 이선미·김경신(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 변수 연구. *한국노년학*, 22(1), 139-157.
- 25) 이승원·김동배·이주연(2008).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107-125.
- 26) 이재인(2010).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한국 대기업 남성들의 경험과 인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119-134.
- 27) 이종범·서혜수·정성덕(1984). 노인의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4(1), 44-51.
- 28) 이주연·김득성(2015). 남편의 은퇴 이후 중노년기 부부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2), 179-193.
- 29) 임소진(2011). 우리나라 중년기 성인들의 인지된 삶의 질 :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통합적 예측모델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장은정(2006). 부부간 인식차이에 따른 은퇴 후 가족 관계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1) 정순돌·김고은·김정원(2011). 은퇴한 배우자를 둔 중고령 여성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1), 137-155.
- 32) 조유리(2000). 부부 갈등 및 갈등 대처 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조지은·김양희·박정윤(2007).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부모기전이 부부를 대상으로. *생활과학논집*, 25, 103-117.
- 34) 채로(200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채옥희·송복희(2006). 30대 주부의 가사노동 수행과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정과학회지*, 9(4), 14-26.
- 36) 최동숙(1991). 가정 자원 관리 체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7) 통계청(2017). 2016 혼인이혼통계. 통계청.
-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39) 한국일보(2017.12.23). 삼식이 남편 둔 아내들 “나에겐 왜 정년퇴직이 없나” 분통. <http://www.hankookilbo.com/v/3e2de1882fd14238ba66f2fc58bdc6d4>.
- 40) Glass, J., & Fujimoto, T. (1994). Domestic labor, paid work, and depression among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2), 179-191.
- 41) Kluwer, E. S., Hessink, J. A., & Evert Van de Vliert, (1996). Marital conflict about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paid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58-969.

- 투 고 일 : 2018년 03월 01일
- 심 사 일 : 2018년 04월 25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05월 27일